

정부 “군산공장 어떻게든 재가동”

산경장관 회의 GM정상화 논의

“GM 포함,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해 나갈 것” 발표
기업이 위기지역내 투자시 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
국유지 임대료를 하향도

전기차 자율주행기지 조성
도, 정부와 재가동 노력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군산공장을 가동하겠다고 정부와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10일에 열린 정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이하 산경장관 회의)에서 한국GM정상화 방안 논의결과, 군산공장 재가동에 대해 군산공장 활용 방안을 신속하게 GM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기업이 위기지역내 투자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비율 대폭 확대, 창업기업 법인소득세 5년간 100% 감면, 국유지 임대시 임대료를 대폭 하향 적용(5% → 1%)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북도민의 간절한 바람에도 군산공장이 끝내 폐쇄된 것은 유감스럽지만, 군산공장 재가동을 향한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은 점은 다행스럽다.

전북도는 군산공장 조기 재가동을 위하여 BH 정부수석 등 3회, 국무총리 3회,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등 중앙부처 15회, 국회, GM에 끈질긴 발품을 팔아가면서 촉구했고, 이에 정부가 군산공장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명문화했다.

또한, 정부와 함께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군산공장을 신속히 재가동 시키는데 집중 노력하여 군산의 4조원의 부가 가치, 1만여명의 일자리를 부활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희생된 가족의 넋을 기리기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10일 전북혁신도시 본원 축훈비 앞에서 축산 시험 연구 과정에서 희생된 가족의 넋을 기리기 위해 축훈제를 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이와 함께, 전북도는 장기적 관점에서 전북도내 주력산업의 체질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

자동차산업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산업으로 고도화하고, 농건설 기계산업 등으로 그 지평을 넓혀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전기상용차 자율(군집)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의 에타 선정과 함께 시험실증 기반구축, 데이터센터, CO-LAB센터 구축을 위한 2019년 사업비 600여 원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농기계산업은 수출 농기계부품 품질 고도화 지원 생태계 구축사업,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 스마트 건설용 융복합 부품 평가기술 기반구축 사업, 완주 뿌리산업 특화단지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사업 등을 농건설 기계 거점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2019년에 394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조선산업은 무인이동체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다각화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무인이동체산업은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여 무인 이동체(잠수정, 수장정) 생산, 관련 부품 개발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재생에너지 글로벌 시험소 구축, 해상풍력 전문 연구센터 설립, 신재생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2019년에는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비 43억원과 수상형 태양광 종합 평가센터 구축을 위한 55억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와 같은 지역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통해 전기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를 조성하고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및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 미래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도 최정호 정부부지사는 “한국GM 군산공장의 재가동 및 정부 지원의 성실한 이행 촉구, 주력산업의 근본적 혁신 등을 통하여, 지금의 위기를 전회위부의 기회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없습니다.

전주지역 공공자원 시민들을 위해 개방

시, 회의실·강의실 등
예약시스템 구축 등 수행

전주시가 그간 업무용으로만 사용되던 공공기관의 회의실과 강의실, 주차장, 강당, 체육시설 등 공공자원을 시민들을 위해 개방기로 했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사업’ 공모에 중점 개방 시범지역으로 선정, 오는 6월부터 공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구축 및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시는 공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내에서 공공기관의 회의실과 강의실, 주차장, 강당, 체육시설 등의 공공자원을 검색해 실시간 예약과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부터 행정안전부와 4차례 시범사업 관련 업무협의를 가졌으며, 이후 전주시교육지원청과 국민연금공단 등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함

으로써 지역 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시는 총 83개 기관(전주시 66곳, 국립무형유산원 등 중앙부처 5곳,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10곳, 지방공기업 2곳)에 대한 전수 조사를 완료했으며, 우선 개방 가능한 전주시 공공자원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을 구축기로 했다. 이후, 홈페이지 고도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참여기관의 정보와 예약·결제 서비스를 확대 탑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안전부의 자원공유를 위한 시설조성 등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에도 선정, 2억2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공공자원예약·결제시스템 구축 △전주도시혁신센터 회의실 칸막이 공사 및 주차관리시스템 설치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차관리시스템 △한옥마을Co-work공간 시설보수 등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기동취재반

무주덕유산CC 춘·추계 골프패키지 ‘큰 호응’

부영그룹(회장 이종근)계열 무주덕유산CC가 2018년 춘·추계 골프패키지를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팀 4인 기준으로 36홀 라운딩과 오스트리아풍의 이국적인 호텔 티볼 또는 가족호텔에서의 숙박, 클럽하우스에서의 조찬까지 포함된 춘·추계 골프패키지는 주중 80만8,000원부터 주말에는 121만8,000원이라는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무주 덕유산 국립공원의 빼어난 절경 속에 호쾌한 드라이브를

을 즐길 수 있는 무주덕유산CC는 ‘골프의 전설, 아놀드 파머’가 청정고원 골프장이라는 지형적 특성을 최대한 잘 살려 풀과 나무, 물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 설계한 명품 골프장으로 정평이 나있다. 해발 900m에 위치한 청정 야생고원 골프장으로 한여름에도 시원하고 쾌적한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골프 예약은 해당일 3주 전(21일 전)부터 유선번호로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매일 INDEX

2면 - 금융도시 육성전략 수립

3면 - 취임 1주년 문 대통령 메시지

5면 - 소상공인 경영개선 컨설팅 지원

6면 - ‘일감몰아주기, 공정경제 저해’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여성이족부가 함께합니다.

현재 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 를 여는 청소년



2018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2018. 5. 24 (목) ~ 5. 26 (토)
군산새만금 컨벤션센터

주최 | 여성가족부 | 전라북도 | 군산시 | 주관 | KJWA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후원 | 교육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부 · 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고용노동부 · 해양수산부 · 중소벤처기업부 · 국가보훈처 · 식물의약품안전처 · 통계청 · 방위사업청 · 경찰청 · 문화재청 · 농촌진흥청 · 산림청 · 특허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